

월요광장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근 한 국내 대형서점의 리뉴얼 사례가 화제가 된 바 있다. 3개월간의 리뉴얼 공사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점 한가운데에 큰 독서 테이블을 설치한 것이다. 통로에 서서 책을 읽거나 바닥에 앉아 책을 보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이 대형 테이블은 뉴질랜드의 5만 년 된 대형 카우리 소나무 재질로 100명이 동시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 테이블이 공개되자 여러 매체가 앞다투어 소개하였고, 이제는 그 서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볼거리가 되어 책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테이블을 보기

위해 서점을 찾는 이들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오고, 머무르고 싶은 서점’을 만들고 싶다고 리뉴얼 작업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 서점의 대표는 리뉴얼 벤치마킹의 모델로 일본의 츠타야 서점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츠타야 서점은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 중 하나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서점업계의 불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일본 전역에 1400여 곳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츠타야 서점의 콘셉트를 차용한 일본 소도시 매장을 각기 다른 콘셉트로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도쿄 다이칸야마에 위치한 매장은 이 도시를 찾는 여행자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이 다이칸야마 츠타야 서점의 콘셉트를 차용한 일본 소도시의 한 공공도서관은 개관 13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어떻게 이 서점은 업계 전반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얼마 전 국내에서 이 서점의 창업자 겸 대표인 이준호씨가 인터뷰를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서점을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곳’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츠타야 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책과 DVD, 음반, 가전기기, 레저용품 등을 함께 팔며 사람들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구성됐다.

물자와 판매 플랫폼이 넘치는 현대에는 고객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안과 기획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창업자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고객 가치’라고 부른다. 그동안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팔기 원하는 것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국내 콘텐츠 산업에도 필요하다. K-Pop과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최근 몇 년 새 주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급격하게 냉각되어 가는 일본 시장과 정부의 주도 아래 미국 경쟁력을 높여 가는 중국 시장을 보면 한류가 ‘화두심일홍’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마저 든다. 이제 원점에

서 한류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한류는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해 왔다. 일본과 중국에서 출발한 한류는 드라마에서 K-Pop, 예능 포맷 등으로 장르를 확장하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연을 계속 넓혀 왔다. 그러나 우리는 한류를 파는 데에만 너무 급급해 온 것은 아닐까? 이제는 한류를 좋아하는 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한류를 녹아들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한류를 기획하고 제안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콘텐츠 플러스 알파’라고 부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콘텐츠와 다른 산업이 융합된 ‘한류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츠타야 서점의 창업자 마스다 무네타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토리를 기획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 이러한 혁신은 콘텐츠 산업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산업에 필요할 것이다.

법조칼럼

새로운 출발



김솔 광주지방법원 판사

2012년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이 곳 광주로 온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형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회생·파산 업무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분야였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법인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인 법인회생, 법인파산과 개인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중 일반회생, 개인파산을 담당했다. 그 중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법률화 강좌, 개인파산 설명회 등을 통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절차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본다.

먼저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라 빠르기 때문에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다소 늦게 제출할 수도 있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인으로서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용어도 생소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절차 진행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무자 각자가 진행하고 있는 파산 및 면책 절차는 각 채무자 개개인이 당사자인 절차라는 사실이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형사책임은 논의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 실제로 면책불허가 사건 중 상당 부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파산 및 면책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할 경우 이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 주로 소액에 관한 허위 진술을 많이 볼 수 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소득이 있어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파산절

차를 이용하기 위해 이를 감추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청서에는 무직으로 수입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파산절차의 악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면책을 불허하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절차 진행에 있어서 자신의 소득, 재산 등을 거짓 없이 기재해야 하며, 만약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관계인 채권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개인파산실시 운용 방안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 선임에 관한 절차비용을 합리화하고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지

지만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는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악성 채무자를 가려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파산 및 면책 제도, 더 나아가 회생·파산 절차 전반에 관해 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파산절차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는 존재한다. 그러나 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성실하게 살았지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얻은 사람들이다. 또한 본인 돈을 실제로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지만 보충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어 파산절차에 이른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채무자들을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파산 및 면책 제도이다.

빚이 있다면 이를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손리이다. 그러나 채무의 늪에 빠져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honest but unfortunate debtor)’에게 파산 및 면책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우리 사회 경제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고

스포츠와 경제



김윤석 광주U대회 사무총장

병신년을 맞아 첫 외유로 장성이카테미에 신년 특강을 다녀왔다. 호남을 들쭉이게 했던 광주유니버시아드를 만든 또 하나의 주역인 호남민의 열렬한 참여에 감사인사를 하고 싶었다. 대회 기간 동안 장성군에서는 오픈워터와 탁구경기가 치러졌다. 유니버시아드 성화봉송 지역에도 포함되어 대회기간 중 유니버시아드를 직접 경험할 고장이었다.

그런 경험의 공영덕분이었을까, 20년을 이어온 지방자치단체 교육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특강 참석자들의 경청 수준은 존경스러울 만큼 높았다. 참석자 중에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고 알고 있는데, 장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받고는 짐짓 놀랐다.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를 경험한 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스포츠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대화가 남긴 큰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KTX 개통은 유니버시아드가 호남에 남긴 큰 유산이며, 향후 호남지역에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복합 서비스 산업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8올림픽, 2002월드컵, 3차례의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 개최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만큼 수많은 대회를 치러냈다. 그리고 이들 대회를 치르는 데만 전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왔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돈 쓰는 스포츠’에 몰두했었다.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야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에 눈을 뜨고 있다. 늦었다고 인식할 때가 빠른 길이다. 반가운 일은 수년 전부터 정부가 스포츠정책의 향로를 변경했다. ‘돈 버는 스포츠’를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스포츠 융복합 뉴시장을 만들고 내년까지 53조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로 신(新)활력을 찾고자

하는 도시들에게는 남보가 아닐 수 없다.

광주유니버시아드가 마무리되고 정부 승안액보다 2000억원을 절감한 사실이 체육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에 큰 울림을 만들었다. 지난 30년의 스포츠대회 개최 역사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는 스포츠 패러다임의 중대한 전환기에 큰 메시지를 남겼다.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스포츠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광주유니버시아드가 진정한 성공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돈 버는 스포츠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역경제 발전 동력화의 길을 모색해야한다.

필자는 유니버시아드를 유지하고 준비해온 지난 9년 동안 스포츠가 도시를 바꾸고, 스포츠가 돈을 버는 동력이 되는 세계의 현장을 목격해왔다. 그때마다 아쉬움이 들었던 것은 돈을 쓰는 대회는 중국, 한국 등 동양에서 치르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유럽이나 북미의 스포츠 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세계 스포츠 시장의 특수를 누리는 것도 이들 스포츠 선진국들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발 증시 쇼크로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저성장과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

고 있으니 시민들은 암울하기만 한다. 지역의 고민도 깊어만 간다.

유니버시아드 성공,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스포츠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보자. 먼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활로를 찾아 볼 것을 제안한다. 첨단 산업화되어 가는 제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관광, 교육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 스포츠를 결합해보자. 스포츠는 도시방문의 계기를 만드는 좋은 촉매제다.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도 수쉬워야 상생발전의 가능성이 열리었다.

지난해 유니버시아드 기간 동안 2만여 명이 광주에서 먹고 자고 소비했다. 전남의 유려한 관광지들과 연계한 성공적인 팸투어의 경험은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복합 산업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도시인 광주가 국내의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 관광산업의 효과는 아껴둔 호남 전체의 자원들과 결합시켜 호남이 함께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유니버시아드의 최대의 유산은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에 눈뜨고 이를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전환하는데 있다고 본다. 장성에서와 같은 질문들이 많아지고, 이 질문에 답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社說

야권 비방·막말 삼가고 연대·통합 고민을

옛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지면서 호남 유권자들은 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측이 오는 4·13 총선에서 호남 표심에 사활을 걸고 있는 터라 혹여 이전투구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더민주 문재인 대표의 ‘복싱’으로 통하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 엇그제 당 원로들과 가진 오찬에서 탈당파를 향해 “호남의 틈새를 가지고 ‘호남 팔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좀 심한 말인 것 같다.

이에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최 본부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호남 민심을 기웃거리지도 말라”고 맞받았다. 이와 함께 야권의 ‘표적 공전’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는 탈당한 현역 의원

들의 지역구에, 신당 진영에서는 핵심 진노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신진 인사들로 대항마를 삼는다는 것이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호남을 마치 흥정 대상으로 취급하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은 썩 편치 않아 보인다. 애초 야권 분열에 당혹해 하면서도 어차피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정치발전에도 매진하며 서로 발전하라는 게 호남의 주문이었을 텐데 서로 헐뜯기 하는 양상에 꽤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권 전체의 공멸을 부를 수 있는 비판을 삼가라는 주장이다. 탈당 의원들이 원수나 적도 아닌데 다시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 할 판에 막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경고다. 호남 유권자의 바람 또한 참신한 인재 발굴과 민생 정책을 선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 비방전이나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야권을 세기고 또 세겨야 할 것이다.

혈세 지원 시내버스 서비스는 엉망이 아니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 시내버스에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광주 시내버스 불만 신고는 모두 803건으로 지난 2011년의 489건에 비하면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접수된 불만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승강장 통과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시내버스는 난폭운전이나 급정거·불친절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광주 시청 민원게시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광주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은 3% 이상씩 해마다 오르고 있다. 임금이 오르면서 버스 회사에 투입되는 시민들의 혈세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시의 재정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0년 이후 5년간 시가 버스 업체에 지원한 금액만 모두 1천831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지원금이 급증하면서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과 광주시의 감독 부실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시내버스 승객은 자가용이 없는 교통 약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결행이나 무정차는 서민들의 불편을 생각할 때 ‘홍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류장에서 서지 않고 그냥 가 버리거나 아예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단축 운행하는 등 결행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특히 버스회사와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한다. 불친절로 지적받는 횡수가 많을수록 버스회사에 주는 시의 재정 지원도 줄어야 마땅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회사는 적지 않은 재정 압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재벌·정치인·방송인 등 유명인들의 불륜이나 파경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음시가 ‘부부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개발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사 때만 남편을 걱정하는 내용용을 담은 백제 가요 ‘정음사’의 공간적 배경지에 300억 원을 들여 테마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는 규모 자체도 크지만 주제가 ‘부부 사랑’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부부 위기 시대를

340년 전에 심은 이 나무는 부드러운 여성을 상징하는 버드나무와 웅맹한 남성을 상징하는 팽나무가 서로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형태다.

“백제가요 정음사 관광단지”에는 주제별 정음·연못 등이 들어선다고 한다. 여기에서 정음시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테마공원에 꼭 자귀나무를 심어달라는 것이다. 자귀나무는 부부 금슬 나무, 사랑 나무, 합한수(合歡樹)라고도 한다.

부부사랑 나무

을 가다가 자귀나무 꽃이 활짝 핀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다가 그 집 처녀와 눈이 맞

아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났다. 이에 부인이 남편 따임을 돌리기 위해 백일기도를 드렸고, 산신령으로부터 자귀나무 꽃을 꺾어 안방에 두라는 계시를 받는다. 이후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특이하게 자귀나무 잎은 낮에는 짙

라도 들을 만한 곳이 있는데 정음사공원이다. 그곳에서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다. 정음사 설화에 근거해 세워 놓은 망부석을 만날 수 있다.

정음시 용산동 정해 마을도 가볼 만 한데 부부나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전설에 따르면 옛날 한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자귀나무 꽃이 활짝 핀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다가 그 집 처녀와 눈이 맞

아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났다. 이에 부인이 남편 따임을 돌리기 위해 백일기도를 드렸고, 산신령으로부터 자귀나무 꽃을 꺾어 안방에 두라는 계시를 받는다. 이후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특이하게 자귀나무 잎은 낮에는 짙

라도 들을 만한 곳이 있는데 정음사공원이다. 그곳에서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다. 정음사 설화에 근거해 세워 놓은 망부석을 만날 수 있다.

정음시 용산동 정해 마을도 가볼 만 한데 부부나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